

# ‘함평 나비대축제’ 세상 재미란 재미는 다 있네

### 28일~5월7일 함평엑스포공원 일대...나비·꽃 등 자연 아름다움 만끽 한우·한돈 시식회, 마당극 공연, 황금박쥐 생태전시관 운영 등 다채

봄꽃 축제의 대명사 격인 ‘함평 나비대축제’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 손님을 맞이한다.

함평군은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를 주제로 제25회 함평 나비대축제를 오는 28일부터 5월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장식은 28일 오전 9시 야외 나비날리기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 주무대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나비대축제에서는 사피니아 등 33종의 다채로운 꽃 40만본과 다양한 나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여기에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관람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끈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서는 야외 나비날리기 체험, 풀잎 나비·곤충 만들기, 생태습지에서는 미꾸라지 잡기, 귀염뽀짝 동물과 친구되기, 쫓소목장 나들이, 보리·완두콩 그름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도 다채롭다. 다육식물관에서는 다육선인장, 용설란 등 650종 3000본을 전시하며, 수생식물관에서는 열대야자, 수련 등 72종 546본과 비단잉어 등 4종 300마리를 전시한다.

친환경농업관은 열대과일 나무를 식재하고 옥수수, 고추, 수박 등 180여종의 농작물 전시와 희귀한 호박터널을 조성하며, 나비·곤충생태관에서는 살아 있는 나비 곤충 일대기와 나비 날리기 체험 등을 한다. 나비곤충표본전시관은 세계 희귀나비·곤충 표본과 곤충 VR미디어 체험시설을 마련했다.

주제영상관 VR체험장에서는 롤러코스터, 퓨처바이크 등 VR 12종과 클레이사격, 축구 등 AR 2종을 체험할 수 있다.

함평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도 운영한다.

지역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28개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우수 농특산품과 가공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축제기간 함평전지전통시장에서 할인장터를 상설 운영하며, 근급미술관에서는 기획전 ‘풍경과 감정이입’을 개최한다.

가정의달을 맞아 극단 여니의 ‘신(新) 뽕파전’ 마당극이 5월7일 오후 2시 펼쳐지며, 전국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나비대축제 전국미술대회’가 5월3일 오전 10시30분 축제장에서 열린다.

함평 축산물 시식회도 열린다. 함평천지 한우구이(5월5일), 한돈요리(5월6일), 오리 훈제(5월7일)를 시식할 수 있다.



제25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28일부터 5월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함평엑스포공원 전경. <함평군 제공>

순금 162kg이 사용된 황금박쥐 조형물이 전시된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을 운영하며, 자연생태공원에서는 50종 300개 화분의 새우란 전시가 열리고, 양서파충류생태공원에서는 멸종위기의 양서·파충류를 관람할 수 있다.

축제장은 밤이 되면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명으로 빛난다. 엑스포공원에 꽃과 함께 장식된 야간경관 조명이 더해져, 형형색색의 빛으로 수놓인 색다른 모습의 엑스포공원을 만나볼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올해 함평 나비대축제는 어

둑고 긴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온 모두에게 힐링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전국 관광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나주 밤길 ‘더 밝고 더 안전하게’

### 11개 읍·면 스마트 가로등 양방향제어 추진·보안등 LED 교체

나주시가 시민 야간 통행 안전을 위해 더 밝고 안전한 가로등 개선사업을 펼친다.

나주시는 빛가람로·빛가람대교 및 원도심 일원 주요 도로에 ‘스마트 가로등 양방향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선정에 힘입어 추진된다. 가로등의 밝기, 작동 상태를 원격 제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성능 개량에 중점을 두고 오는 7월까지 기존 가로등 611개소에 감시기, 제어기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로등 시설 설치에는 국비 1억6000만원을 포함, 사업비 4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원격 점검을 통해 가로등 불량 작동 파악에 따른 즉각적인 보수 처리가 가능해지며 시간대별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어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11개 읍·면 지역 어두운 길을 더 밝고 안전하게 비출 계획이다.

노후 저효율 보안등 300개를 예산 2억5000만원을 투입해 고효율 등기구(LED)로 교체하고 시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을 도모한다.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를 거쳐 읍·면 소재지에서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 위주로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강진군, 공보의 14명 신규 배치 ‘의료 공백 해소’

### 소아청소년과 등 분산 배치

전국적인 공보의 감소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은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 14명을 신규 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진군은 최근 보건기관 일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 의료서비스 개선책 마련을 위해 공중보건조사(이하 ‘공보의’)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공보의 수급 감소로 인한 지역 공공의료의 진료 가능 축소 문제와 다양화된 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협업 대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강진원 군수와 올해 4월 신규 배치된 14명의 공보의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전국 최고 규모의 육아수당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 걷기 사업 등 군 보건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공보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군은 지난 3월과 4월 초 12명의 공보의가 전역함에 따라 3주간 의료 공백 상태였으나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남도에 방문, 신속 배치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

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신규 공보의 14명이 추가 배치되면서 18일부터 정상 진료 중이다.

신규 공보의는 장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마량보건지소 의과로 배치했다.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강진 건설을 위해 보건소 ‘소아청소년과’에도 분산 배치했다.

한정된 의료인력 자원으로 인해 현재 대구보건지소가 의과 공백 상태이지만, 대신 한의과를 대체 투입하고 치료를 기존대로 운영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화순 고인돌축제, 선사시대로 시간여행

### 고고학자 발굴·VR활쏘기 등 체험...와구족 생활 재현 퍼포먼스도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활용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선사체험장 대신리 문화체험관이 이색 체험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화순군 제공>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을 주제로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선사체험장 이색 체험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활용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선사체험장, 대신리 문화체험관이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고인돌 선사마을 놀이터에서 고대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되는 것을 비롯해 고고학자 발굴체험, 과거와 현재가 결합된 VR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2023 화순 고인돌축제’에 맞춰 오는 30일

까지 금·토·일요일에 특별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와구족이 사냥에서 돌아왔다’라는 주제로 선사시대 생활 재현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대신리 문화체험장에서는 자연환경 보호 취지로 친환경 설치비바 만들기 유료체험과 고인돌 도서관 등이 운영된다. 고인돌 축제 기간에는 관람객을 위해 풍선아트와 달고나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체험장 입장료는 무료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농협 직원들 ‘고향사랑’

### 함평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함평 출신 농협 직원들이 함평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냈다.

농협 함평군지부는 26일 함평이 고향인 농협 직원들이 함평군청을 찾아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에는 이광재 농협 함평군지부장과 주제법 NH농협은행 신북포지점장 등 농협 함평군향우회 회원 8명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함평지역 주민 복지 증진에 쓰인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을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 전할 수 있다.

함평 출신인 정상훈 농협하나로유통 전무이사는 “땀은 고향을 떠나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어디서



26일 함평 출신 농협 직원들이 함평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나 내 고향 함평이 발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

으로 정착해 농업인의 미래도 함께 밝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장흥 정남진산업고→전남기계자동차고 전환

### 내년 2월 경영정보과 폐지...기계자동차과 체제 운영

장흥지역 특성화학교인 정남진산업고등학교가 내년 학기부터 전남기계자동차고등학교로 교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남진산업고는 내년 2월말로 경영정보과가 폐지되고 기계자동차과 학과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자동차 전문기능 교육특성과정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전남기계자동차고로 교명을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학교는 지난 10일 박미옥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명변경(가칭 전남기계자동차고등학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문과 각계 지역사회대표, 유관기관장, 학부모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학교측은 오는 5월2일 전남도교육청에 교명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학교가 전남기계자동차학교로 바뀌어도 내 고등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자동차엔진 정비,

자동차 세시자동차 정비,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정비, 피복아크용접 기계제도 분야 등을 이수한 자동차 전문특성화학교로서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이 학교 기계자동차과에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 건설기계 정비 기능사, 용접 기능사, 지게차 운전 기능사, 굴삭기 운전 기능사, 로더운전 기능사, 자동차 차체수리 기능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한편, 이 학교는 지난 1970년 3월에 장흥여자가 정고등학교로 개교된 이후 1973년 장흥여자고등학교(인문계)로 변경 1993년 장흥실업고등학교로 변경, 2014년 정남진산업고등학교로 변경해 올해까지 51회 총 15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29일 백양사 산사음악회

### 가수 정태춘·박은옥 출연

4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는 29일 장흥 백양사에서 싱그러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장흥군이 주최하고 백양사가 주관하는 ‘백양사 산사음악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상계루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와 비비에스(BBS) 광주방송은 후원을 맡았다.

백양사 산사음악회는 수려한 백암산에 둘러싸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봄 행사다.

올해는 한국 포크음악의 전설 정태춘·박은옥 부부가 백양사를 찾는다. 깊이 있는 기타 연주를 바탕으로 삶을 관조하듯 읊조리는 이들의 음악은 농촌 안 되는 콘서트로 꼽힌다. 박강수, 최유나, 이재주, 김영희 등 초대 가수들도 음악회 흥을 북돋는다.

/장흥=김용호 기자 yongho@

## 내장산 백암탐방안내소 개소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가 장흥군 북하면에 위치한 탐방안내소의 문을 열었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탐방안내소는 연면적 813㎡, 지상 2층 규모다. 1층은 안내데스크·프로그램

실·커뮤니티실, 2층은 전시실·환경교육관 등으로 구성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 인증을 받아 시각·지체 장애인도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재동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은 “내장산국립공원에 역사·문화를 알리는 거점 역할을 하나 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호 기자 yongho@